



인쇄 소공인 경쟁력 및 역량강화 기여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에는 영세한 인쇄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디지털인쇄기, 자동평판커팅기, 3D 프린터 등 최신 장비를 갖춘 공용인쇄장비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D 프린터실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고, 카메라 및 조명을 갖춘 미니스튜디오에서 제품 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업무 공간이 부족한 인쇄 소공인을 위한 회의실과 바이어실, 디자인교육실 등도 마련했다.

센터 설립하기 전 현장 조사를 통해 대다수의 인쇄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활용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특히 장항동 집적지구 인쇄 소공인들은 포장용 박스나 판촉물 등 생산품 위주 제작이 대부분이었기에, 마케팅과 디자인 등 다양한 교육도 필요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법 등 디자인 전문 교육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 소공인과 인쇄산업에 관심 있는 예비 취업자와 창업자 모두에게 열린 기회다. 김재윤 센터장은 “디자인전문 기술과 인쇄장비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달력 만들기 등 인쇄물 제작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쇄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시민에게 활짝 열린 인쇄문화 체험 기회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는 인쇄 소공인들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다. 시민들도 이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달력 만들기’ 체험 역시 무료다. 인쇄 소공인의 시설 이용과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 홈페이지 및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지난 12월 15일에 센터를 찾은 체험객들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달력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체험객들은 집에서 미리 골라온 12장의 사진을 디자인 프로그램을 통해 달력 배경에 넣고, 인쇄와 재단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낱장으로 나온 달력을 스프링 제본까지 해보며 신기해 한다. 또, 종이접기 등 모형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직접 종이를 접고 조립하면서 모형을 만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하나 가득이다.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가 인쇄 소공인 활성화와 인쇄문화 체험의 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Mini Interview

서경애
[일산서구 가좌동]



지난 11월에 아이들과 함께 달력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결과물이 좋아서 2023년을 앞두고 가족사진으로 새해 달력을 만들러 다시 왔습니다. 개소 이후 프로그램이 점점 개선되면서 즐길 거리가 다양해지는 듯해요. 다음에는 아이들과 한 번 더 방문할 예정입니다.

심현미
[파주시 운정동]



<고양소식>을 구독하는 친구 덕분에 고양특례시 정보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재단하고 달력이 인쇄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경험입니다. 고양시에 사는 친구들에게도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